

## 고전시가에서 “江南”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하여

김창원\*

— <차 례> —

1. 머리말
2. “江南”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존재 양상
3. “江南”의 공간 개념과 역사성
4. 결어

### 〈국문초록〉

우리 고전시가에서 ‘양자강 이남’이라는 의미의 “강남(江南)”은 장사(長沙), 소상강(瀟湘江), 동정호(洞庭湖), 창오(蒼梧)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때 이 지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비극성에 있다. 그리고 이 비극적 상징공간은 충신, 열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군, 유배문학의 공간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런 의미의 “강남”이라고 하는 상징공간은 특별히 조선시대 서울양반들의 문학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누대에 걸쳐 경저(京邸)-별서(別墅)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서울양반들의 심상지리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양반의 거주지 공간개념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러한 심상지리의 더욱 근원적인 발생지는 당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중앙중심적 지향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강남, 장사, 소상강, 동정호, 창오, 상징공간, 비극성, 경저(京邸), 별서(別墅), 서울 양반, 심상지리.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우리의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강남”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령 우리가 이 충무공의 “한산섬~” 시조를 읽을 때, ‘한산도’가 가지는 공간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시조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겠는가?

고전문학에서 공간의 문제는 예컨대, 조선시대 한강이나 16세기 光羅 지역 등과 같이 문학 창작의 현장으로서 혹은 문학작품의 제재의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근래에 지리학계의 문학지리 연구방법을 활용한 공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문학작품의 실질적 독해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식이나 지역과 지역 사이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sup>1)</sup>들은 문학 연구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아직 그 성과들이 문학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아직 고전문학의 공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현재 전근대 시기의 지리, 지역, 공간을 비롯하여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상상의 지리, 심상지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래되어 저 북쪽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을 거의 상실한 상황인지라 전근대 시기 우리의 땅 전체를 우리의 상상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대표적으로 오수창, 『《청구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평양 인식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 2007.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을 단순히 문학의 한 제재로서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학지리처럼 고전문학에 형상화된 강남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로 한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문학적 상징공간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주제의 문학적 배경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습과 전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나아가 그것을 즐겨 사용한 집단은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정 정도 지역문학적 관심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강남”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존재 양상

“강남”이란 중국의 양자강 이남, 특히 동정호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동정호 일대에는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황과 여영 즉, 二妃와 관련된 전설이다. 아황과 여영은 남편인 순임금을 찾아 천하를 헤매다가 이곳에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놓아 울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굴원, 가의와 같은 충신들의 슬픔과 원한이 서린 장소이기도 하였다. 충신 굴원은 조정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울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떡라수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소설 <사씨남정기>는 이곳을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람은 순하고 배는 빨라 동정호 어귀를 지나 악양루 아래로 나아가니, 그곳은 바로 옛날 전국시대의 초나라 땅이었다. 순임금이 남방으로 순수하다가 창오의 들에서 봉어하셨다. 두 왕비 아황과 여영은 따라갈 수가 없었으므로 상강 물가에서 눈물을 뿌렸다. 그 눈물이 피로 변하여 대나무 숲을 덮

었다. 이른바 소상만죽이 그것이다.

그 후 초나라의 어진 신하 굴원은 회왕을 섬기며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소인의 참소를 받아 이소를 짓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나라 가의는 낙양의 재자였다. 그런데 당시 대신에게 미움을 사서 장사로 추방을 당했다. 그도 이곳에 이르러 글을 지어 물에 던져 굴원을 조상하였다.

이들의 유적이 천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으니, 이곳은 진실로 시인과 지사의 단장의 땅이 되었다. 그리하여 매양 구의산 기슭에 구름이 일거나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거나 동정호에 달이 밝거나 황룡묘에서 두견이 슬피 울거나 하면, 비록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연하게 눈물을 흘리며 크게 탄식을 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2)</sup>

문학에서 배경은 나름대로의 역사적·문화적 사연을 지닌 곳이고, 이 공간은 다시 문학작품에 등장함으로써 더욱더 입체성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특정 공간은 문학적 상징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공간이 상징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현실을 지배하려는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징과 현실은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자연 지리와 역사지리와 상상의 지리는 언제나 상호보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자연지리, 역사지리, 상상의 지리가 상호작용하여 동정호 일대의 강남 땅은 늘 충신문학, 열녀문학의 배경이 되어 왔다. 우리 고전시가에서 강남을 배경으로 한 충신문학, 열녀문학의 가장 대표작이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다.

乾坤이 閉塞하야 白雪이 한빛친 제

2) 김만중 지음, 이래중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초판:1999), 93쪽.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곳쳐있다  
瀟湘 南畔도 치오미 이리커든  
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삼하리  
陽春을 부쳐내여 님 겨신 대 쏘이고져  
茅簷 비취어 해탈 玉樓의 올리고져<sup>3)</sup>

이 작품은 내침을 당한 여인이 입을 그리는 내용의 노래인데, 시적 공간이 바로 ‘소상강’이다. 그리고 한겨울 소상강 남반을 거닐며 입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여성인물은 바로 이 강물에 투신했던 二妃의 분신이다.

아래의 시조들도 동정호 일대가 간직하고 있는 비극적 역사를 전고로 활용하여 忠과 烈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형상화하고 있는 예이다.

<가> 蒼梧山 聖帝魂이 구름 조차 瀟湘에 ㄴ려  
夜半에 흘러 드리 竹間雨 되온 ㅅ은  
二妃의 千年淚痕을 못내 시서 흠이라<sup>4)</sup>

<나> 洞庭 ㄴ근 ㄴ이 楚懷王의 ㄴ시 되야  
七百里 平湖에 두렷이 비취어 ㅅ은  
屈三閭 魚腹裏 忠誠을 못내 ㄴ켜 흠이라<sup>5)</sup>

<다> 楚江 漁夫들아 고기 낚가 습지 마라  
屈三閭 忠魂이 魚腹裏에 드렷느니

3) <思美人曲>, 『松江歌辭(星州本)』, 김성배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81 (초판:1961), 58쪽에서 재인용.

4) <二妃>, 김천택 편, 『청구영언』, 조선진서간행회, 1948, 84쪽.

5) <懷王>, 김천택 편(1948), 위의 책, 84쪽.

아므리 鼎鑊에 슬픈들 變홀 줄이 이시라<sup>6)</sup>

위 시조들은 이비, 회왕, 굴원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비극적 일생과 초나라에 관계된 고사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와 <나>는 ‘瀟湘夜雨’나 ‘洞庭秋月’ 같은 문학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재해석하여 거기에 이비와 회왕의 사적을 맞췄으며, <다>는 어부에게 건네는 말로 시작하여 삶아도 변치 않는 굴원의 충혼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상징으로서의 “강남”은 우리문학사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주 일찍부터 우리의 문인들이 “강남”을 전고로 활용하여 시문을 창작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극적 공간으로서의 “강남”이 우리문학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이다.

처음에 제상이 떠나갈 때에 그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망덕사 문 남쪽 모래밭 위에 이르자 주저앉아 길게 목 놓아 울었다. 이 때문에 이 모래밭을 “長沙”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그의 양쪽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돌아오려는데 부인이 다리를 뻗치고 앉아 일어서지 않으므로 그 땅 이름을 “벌지지”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부인은 못 건널 만큼 남편을 사모하여 딸 셋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다보고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치술 신모가 되었으니 지금도 이곳에는 당집이 있다.<sup>7)</sup>

여기에 “장사”라고 하는 지명이 보인다. 이 “장사”라는 지명은 한 여인의 감당할 수 없는 생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이 새겨진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 “장사”라는 지명의 유래를 ‘모래밭 위에 주저앉아 길

6) <屈平>, 김천택 편(1948), 위의 책, 84~85쪽.

7) <奈勿王 金堤上>, 一然, 『三國遺事』, 『紀異』.

게 목 놓아 울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의 “장사”가 실상은 동정호 일대의 장사와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사”는 굴원, 가의와 같은 충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장소였다. 이 자료는 우리의 민간설화를 문헌화하는 과정에서 문인들이 우리의 설화의 현장에 중국 양자강 이남의 비극적 이미지를 투사하여 그 주제를 심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시가와 관련하여 “강남”이 최초로 등장하는 가요는 <선운산>이다. 『고려사』의 사가들은 삼국시대 백제가요로 알려진 <선운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長沙에 사는 사람이 먼 고장으로 부역에 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다 이 노래를 불렀다.<sup>8)</sup>

여기서 “장사”는 전라도 서해안의 바닷가 지명이다. 현재 이 이름은 사라지고 없으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실제 무장현에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다.

이 노래가 실제 전하는 대로 백제의 “장사”라는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오지 않는 남편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여심을 노래한 이 가요의 현장에 굴원의 상처를 간직한 “장사”라는 지역의 역사, 이미지를 녹여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옛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노래인 <선운산>을 련이라는 주제와 관련지어 향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련은 患이라는 주제로

8) 『樂志』, 三國歌謠條.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우리나라 가요들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변해서는 안되는 마음을 부부 혹은 남녀 간의 관계로 바꾸어 표현한 예가 많다. 이른바 충신연주지사의 전통 가요들이 그러하다. <선운산>과 같은 노래들이 속악으로 채집되어 전승되고 또 사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선에 들어와서 동정호 일대의 비극적 공간을 무대로 지어진 국문시 가로는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조 작품들이 강남 일대의 소상강, 창오산, 동정호 등을 전고로 활용하여 연군이나 쫓겨난 신하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일례로 다음 작품을 보자.

<가> 蒼梧山 히 진 후에 二妃는 어디 간고  
 흠씩 못 주근들 셔름이 엇더턴고  
 千古에 이 뜻 알 니는 댓습힌가 ㅎ노라<sup>9)</sup>

<나> 九疑峯 구름 일고 洞庭湖에 달이 돛고  
 瀟湘江 밤비 오고 黃陵廟上에 杜鵑이 운다  
 엇지타 이 곳즌 千里遠客 歸不歸인가<sup>10)</sup>

<가>는 17세기 신희의 작품인데, 광해군 대에 김포로 방축되어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시조는 흔히 선조임금에 대한 연군의 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순과 이비의 사적을 전고로 활용하여 함께 죽지 못하고 혼자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스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나>는 동정호 일대의 역사와 풍정을 사시가 형태로 엮어 쫓겨난 신하의 외로

9) 申欽, <放翁詩餘>, 김전택 편(1948), 위의 책, 31~32쪽.

10) 『時調集』(慶大本).

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의 고전시가는 전통적으로 연군이나 쫓겨난 신하의 정서를 표현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아래의 『진본 청구영언』 『무명씨』에 [연군], [견적]이라는 주제명으로 실려 있는 시조들이 좋은 예이다.

나의 님 向흔 뜻이 주근 後 | 면 엇더홀지  
桑田이 變호여 碧海는 되려니와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시라

가마귀 눈비마자 희는듯 검노미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向흔 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간밤의 우던 여홀 슬피우러 지내여다  
이제야 싱각호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물이 거스리 호로고져 나도 우러 네리라

늙고 病든 몸이 北向호여 우니노라  
님向흔 只음을 뉘아니 두리마는  
들블고 밤긴적이면 나뿐인가 호노라[이상 戀君]

님이 해오시매 나는 전혀 미덧드니  
날 스랑호던 情을 뉘 손디 움기시고  
처음에 피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라

어제 감던 머리 현마 오늘 다 셀소냐  
鏡裏 衰容이 이 어인 늘그니오

님계서 뉘다 흐셔든 내 괴로라 흐리라

이리 헤고 저리 헤니 속절업슨 험만 만희

業구즌 人生이 살고져 사란는가

至今히 사라 잇기는 님을 보려 흠이라 [이상 謔謔]<sup>11)</sup>

이상 [연군]과 [견적]으로 묶인 시조들은 모두 임금을 향한 신하의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연군]은 남성 신하가 임금을 그리는 피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견적]은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를 남녀관계에 빗대어서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 차이는 그 배경에 있다. [연군] 시조들이 대체로 배경을 뚜렷하게 잡지 않고 정서 위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데 반해, [견적]은 漢나라 長信宮과 같은 역사적 공간을 시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의 후궁이었던 반첩여가 거쳐하던 궁이었다. 성제에겐 반첩여와 조비연이라는 두 명의 아리따운 미인이 있었는데, 성제의 사랑이 처음에는 반첩여에게 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비연에게로 옮겨갔다. 조비연은 성제의 마음이 다시 반첩여에게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녀를 무고하여 옥에 가두게 된다. 뒤에 반첩여의 혐의는 풀렸지만, 그녀의 처지는 그 옛날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때와 같지 않게 된다. 반첩여는 장신궁에 머물면서 과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일을 회상하며 비감에 젖었다고 한다. 위의 [견적] 시조들은 모두 이상의 반첩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의 목소리를 빌어다가 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다.

강남이라는 비극적 상징공간을 시적 배경으로 한 시가들은 위의 시조

11) 김천택 편(1948), 위의 책, 70~71쪽.

들과 달리 굴원, 가의, 이비와 같은 인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런 관계로 하나의 동일한 작품에서 이 인물들의 목소리가 섞여 중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정철의 <사미인곡>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3. “江南”의 공간 개념과 역사성

우리나라의 충신, 열녀문학은 늘 중국의 양자강 남쪽이 가지는 비극적 역사를 전고로 활용하여 그 주제를 표현해 왔다. 고전시가의 이른바 연군 시가, 유배시가에서 화자가 놓여 있는 공간은 자주 강남땅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그 이미지가 짙게 투영된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충신, 열녀문학에서 하필 양자강 남쪽이 중요한 전고로 활용되고 있는나이다.

정철의 <사미인곡>에서 강남은 지상의 끝이자 절망의 땅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믿었던 임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여성이며, 그녀가 쫓겨난 것은 첩의 무고로 인해서이다.

이러한 문학적 구도는 소설 <사씨남정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이 소설은 강남이라고 하는 문학적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씨남정기>에는 사씨가 쫓겨간 강남 외에 세 개의 중요한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의 끝이자 절망의 땅인 강남은 이 세 개의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세 개의 공간은 주인공 사씨가 시집간 유연수 집안의 京邸, 別墅, 鄉第이다. 여기서 경저는 서울집(북경집)을, 별서는 서울 인근의 지역에

둔 집을, 향제는 시골집을 의미한다. 우선 이 소설 속에 이 세 개의 공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가) 명나라 가정 연간 북경 順天府에 한 재상이 있었다. 성은 劉요 이름은 熙이니 誠意伯 劉基의 후손이었다. 유희의 사대조가 북경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던 연고로 순천부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 교부가 무심코 新城으로 가는 남쪽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그러자 사씨는 교부에게 명하여 길을 바꾸게 하였다. 사씨는 朝陽門을 지나 유씨 선영 아래로 가 그곳에서 초가 몇간을 얻었다. (중략) 그 지방은 바로 유씨의 종족과 노복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들은 사씨가 온 것을 보고 모두 감탄하여 종종 채소와 과일을 보냈다.

(다) 한림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으나 감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武昌에도 전답이 있었다. 한림은 그곳을 귀로할 장소로 삼으려 하였다. (중략) “나는 지금 간신히 사지를 벗어났소. 그러나 돌아보건대 망한 집안의 위태로운 신세로서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이지요. 장차 무창으로 돌아가려 하오. 그곳에서 先業을 수습하여 家道를 조금 이룩한 후에 신주를 모시고 와서 신명에게 용서를 빌 것이오”. (중략) 한림은 악주에 이르러 배를 바꾸어 타고 무창으로 갔다. 일시 흩어졌던 노복들도 역시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중략) 그 무렵 유한림은 동청의 화를 피하기 위해 성명을 바꾸고 서생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창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를 아는 자가 없었다. 한림은 노복들을 거느리고 힘써 농사를 지었다. 식량은 자급하고 또한 群山으로도 운송하였다.<sup>12)</sup>

(가)는 유희의 사대조 다시 말해, 유연수의 오대조 유기가 명나라 개국

12) 김만중 지음(2004), 위의 책, 13; 81; 127; 142; 144; 149쪽.

공신이 되어 서울(북경)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를 계기로 유씨 집안이 서울에 눌러살았다는 설명이다. 유기 이후 유연수까지 6대가 서울을 고수하며 살아온 셈이다. 이들이 서울에 가진 집이 이른바 경저이고, 이곳 경저에서 유씨 집안의 벼슬 생활과 일상 생활이 이루어진다.

(나)는 유씨 집안의 별서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반들이 벼슬살이를 위해 서울에 둔 경저와 달리, 그들이 주로 유식 혹은 은둔을 목적으로 근기에 둔 집을 별서라고 부른다. 별서는 보통 서울 도성에서 하루 여정 안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양반들이 서울 근처에 살 만한 곳을 물색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이란 의미의 ‘可居地’는 주로 양반들이 서울을 떠나야 할 때 고심하는 주제다.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 근처에 살 만한 곳을 찾게 된다.

별서 인근에는 대체로 선조들의 묘가 있었고, 종토가 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종토를 근거로 후손들이 번성하여 하나의 종족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씨 집안은 6대에 걸쳐 서울 생활을 한 결과 서울 인근 지역에 일정 규모의 종족촌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인공 사씨는 도성에서 나와 자기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의 별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문다. 사씨의 이런 모습은 실상 조선의 양반들이 서울에서 밀려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다)는 향제, 곧 유씨 집안의 시골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시골집은 유씨 집안이 서울로 입성하기 전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다. 향제는 서울의 경저와 별서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이다.

유연수는 파탄난 서울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비들을 향제인 무창에 소집하여 자신이 직접 농장을 경영한다. 그리고 나중에 복권이 되어서도 식솔들을 거느리고 무창에 머문다. 서울 생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연수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최종 집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서울의 경저였다.

유연수 집안이 도성 안에 경저를 두고 있었고, 또 이 집안의 매장지가 조양문 밖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일상 생활이 서울의 경저와 인근의 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연수 집안은 개국공신 유기 이후 서울의 경저와 인근의 별서를 중심으로 대대로 살아왔고, 무창의 향제는 일상적 거주지로서의 의미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우, 경저, 별서, 향제 이 세 가지 집 가운데 어느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조선 중·후기에 가면 그 중 경저·별서에서 향제로, 또는 향제에서 경저·별서로 이동하며 세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는 양반 집안을 자주 보게 된다. 18세기 중반부터는 경저와 별서만 이동하는 양반과 향제에만 머무는 양반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경향분기”의 현상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설에서 사씨가 쫓겨간 강남을 조선시대적 상황으로 치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양자강 남쪽이라는 의미의 “강남” 또는 이 지역과 연관된 “洞庭湖”, “蒼梧”, “瀟湘江”, “長沙” 등의 시어에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거주 양식과 관련한 어떠한 역사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사실은, 연군이나 유배의 정서를 다룬 국문시가들이 향촌에 기반을 둔 재지사족에게는 매우 낮은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고전시가사에서 연군 또는 유배시가를 창작

한 재지사족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연군시가는 거의 대부분 소위 京郊 人에 의해 창작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군시가 작가들은 조선시대 서울인으로서의 독자적 생활방식과 문화를 향유했던 사회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sup>13)</sup>

따라서 우리는 연군이나 유배시가가 이처럼 왜 하필 조선시대 京郊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특수한 계층으로부터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별서를 정할 때 일차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서울 도성과의 접근성이었다. 별서는 또한 지방의 향제로부터 올라오는 곡식과 생필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도 교통의 요지가 선호되었다. 근기의 별서가 주로 한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강변 부근에 포진해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양반들의 별서는 도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략 서로는 강화, 안산에서 동으로는 여주에 이르는 한강수로 일대, 그리고 북으로는 파주, 연천에 이르는 임진강 일대의 지역에 주로 포진하였다.

그런데 서울과 근기의 별서만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는 양반들의 경우, 그들은 대체로 근기 안과 근기 밖의 지역을 매우 색다른 세계로 느끼고 상상하게 된다.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근기의 마체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의 문밖에서 몇 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鴻荒世界]가 되어 있어, … 사람이 살 곳은 오직 서울의 십리 안팎뿐”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近畿를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만약 근기에서 밀려나게 되면 “노루나 산토끼처럼 문명에서 떨어진 무지렁이가

13) 자세한 것은 필자, 『조선시대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연군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31호, 서울학연구소, 2008, 109~114쪽을 참고할 것.

돼버릴 뿐”<sup>14)</sup>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차별에 기초한 지역인식은 당대 서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상 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경저-별서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들의 거주방식과 삶의 양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지역 인식은 조선후기 경향분기가 고착되면서 더욱 강화된 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조선 양반들의 거주방식과 삶의 양식에서 기인한 이상, 그 이전 시기라고 해서 크게 달랐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송강 정철의 시조는 그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光化門 드리드라 內兵曹 上直房에  
 흐룻밤 다섯更에 스물 석點 치는 소리  
 그 덧에 陳跡이 되도다 쉼이론 듯하여라

蓬萊山 님 계신 디 五更 친 나른 소리  
 城 너머 구름 지나 客窓에 들리느다  
 江南에 느려웃 가면 그림거든 엇지리

쁜 누를 데온 물이 고기도곤 마시 이세  
 草屋 조분 줄이 그 더욱 내 分이라  
 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 계워 호노라<sup>15)</sup>

송강의 도시적 생활체질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 이른바 “강남” 땅에서 입을 그리는 내용의 연작 시조이다. 이 시조는 아마도 송강의 향제가 있던 창평에서 지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강남”은 서울과 대비

14)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1980, 126~127쪽.

15) 김천택 편(1948), 위의 책, 15~16쪽.

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굴원의 <이소>가 지어진 양자강 남쪽의 비극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인은 거기만 내려가면 서울 생활이 그림고 임이 보고 싶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강남”이라는 공간이 특별히 송강처럼 도시적 생활체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양자강 남쪽이라는 의미의, “강남”이라는 문학적 상징 공간은 경저, 별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던 서울의 양반들이 서울 밖의 세계에 대해 가졌던 심상지리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양반들의 별서가 대부분 한강 인근에 포진해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서울 생활이라는 것이 대체로 도성과 한강 이내의 지역에 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밖의 세계를 한강을 경계로 상상하는 심상지리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남”이라고 하는 문학적 공간이 서울과 인근 근기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양반들의 거주지 공간 개념이 만들어 낸 심상지리의 산물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 요컨대,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은 경저-별서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 공간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조선시대 서울과 인근 근기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특수한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사씨남정기>가 설정하고 있는 공간 역시 이같은 특수한 사람들의 욕망과 사상을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강남”이라고 하는 상징적 공간의 기저에는 서울양반들의 오랜 중앙중심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저-별서라고 하는 거주 형식 자체가 바로 중앙중심적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조선 양반들의 족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사미인곡>을 지은 송강의 집안과 <사씨남정기>와 <속사

미인곡>을 지은 김만중, 김춘택 집안의 족보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강남”이라고 하는 문학적 상징공간과 경저-별서라고 하는 거주공간과의 관련, 나아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중심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하겠다.

송강 정철은 대부분의 생애를 서울의 경저와 근기의 별서만을 이동하며 살았던 전형적인 서울양반이다.

송강의 집안은 원래 고려 개성에서 대대로 벼슬살이를 하면서 살던 집안이었다. 그러다가 송강의 5대조 洪 무렵에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한양으로 이주하게 되며, 서울 반송방에 경저를 마련한다. 이후 송강 집안은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신원에 별서를 둔다. 송강 집안이 언제 고양에 별서를 마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철 선대의 묘가 주로 인근의 파주, 교하 지역에 있고, 고조부 自淑의 묘가 고양 원당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이곳에 지역적 연고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강 집안이 전라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송강의 할아버지 滄가 광산김씨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송강 집안은 이를 계기로 창평 지역에 향제의 기반을 서서히 닦아 가는데, 송강이 활동하던 시대에 담양의 향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우거지에 불과하였다. 송강 집안이 전라도 창평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송강 이후 몇 대가 지나면서부터이다.

송강 집안의 별서가 있던 새원은 거리상으로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고양에는 정철 외에도 많은 양반들이 별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도성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송강 집안은 이렇게 생활의 중심을 서울과 인근의 근기로 착실하게 다져가는 한편, 왕실 및 명문들과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세를 확장해 나간다.

한양에 터를 잡기 시작한 송강의 4대조 淵에게는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세 딸이 각각 신숙주 집안, 부마인 길창위의 아들, 그리고 안평대군과 혼인한다. 또 증조부 自淑의 두 딸이 각각 효녕대군의 손자인 고림군, 세종대왕의 손자인 운산군과 혼인한다. 이외에도 송강의 두 누이 중 한 사람은 인종의 귀인이었고, 또 하나는 계림군과 혼인하기도 하였다.

송강 집안이 이미 고려대부터 수도 개경에 터를 잡은 중앙귀족인 반면, 김만중, 김춘택 집안은 충청도 연산에 세거하다가 김만중의 4대조 김계휘가 문과급제하면서 드디어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계휘의 아들 김장생이 사헌부 대사헌을 지내고, 또 김장생의 아들인 신독재 김집과 김반이 연달아 과거급제를 하면서 이 집안은 점점 서울과의 연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다가 드디어 김반의 아들이자 김만중의 아버지인 김익겸 대에 와서 서울로 거주지 중심을 옮긴다. 그리하여 김익겸 대로부터 이 집안의 매장지가 충청도 고정, 논산, 대전 등지에서 근기의 광주, 수원, 반월, 장단 등지로 이동한다.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아울러 근기에 별서를 마련하는데, 이 집안의 별서는 광주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김익겸 대로부터 이 집안의 생활이 서울의 경저와 광주의 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김익겸의 아들 김만기와 김만중 대로부터 이제 이 집안은 본격적인 서울의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김만기와 김만중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어 김만기의 두 아들과 손자 셋이 과거에 급제한다. 그리고 이 집안이 혼인을 통해 세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은 이루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면면이 화려하다.

이처럼 이들 가문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 물줄기는 중앙에 대한 지향성 또는 중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지향성이다. 이 중앙 중심적 멘

탈이 면면히 지속되면서 한 가문의 거주 형식을 결정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을 규정하며, 그들의 생활 체질을 만들며, 그들의 심상지리를 형성했던 것이다.

#### 4. 결어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시가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먼저 “강남”이라는 공간이 고전시가에서 매우 비극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충신, 열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군, 유배문학의 공간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강남”이라고 하는 상징공간이 특별히 서울양반들의 문학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누대에 걸쳐 경저-별서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서울 양반들이 가졌던, 서울 밖의 세계에 대한 일종의 심상지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보았다. 나아가 그것이 서울양반의 거주지 공간개념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러한 심상지리의 더욱 근원적인 발생지는 당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중앙중심적 지향성이라고 보고 몇몇 작가의 족보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고전시가에서 “강남”이 가지는 의미는 비극적 상징공간 하나로 획일화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소상팔경가> 같은 작품에 형상화된 강남은 비극성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이 혼재하고 있다.<sup>16)</sup> 또 동정호나 악양루 등의 공간 역시 그 이미지가 단순치 않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16) <소상팔경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37~64쪽.

## 참고문헌

### 1. 자료

金富軾, 『三國史記』.

김천택 편, 『청구영언』, 조선진서간행회, 1948.

『時調集』(慶大本).

一然, 『三國遺事』.

### 2. 논저

김만중 지음, 이래종 옮김,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초판:1999), 1~349쪽.

김성배 외, 『주해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81(초판:1961), 58쪽.

김창원, 『조선시대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연군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31호, 서울학연구소, 2008, 109~114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37~64쪽.

오수창, 『《청구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평양 인식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37, 한국사연구회, 2007, 79~108쪽.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1980, 126~127쪽.

ABSTRACT

On the Symbolism & Historicity of the space  
of Gangnam in classical poetry

Kim, Chang-won

In classical poetry, the word Gangnam, meaning to the south of Yangtze River, appears as various different names such as Gangsa, Sosanggang, Dongjungho, Chango etc. in which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ose areas lies in their nature of tragedy.

And this symbolic space of tragedy appears frequently as a space longing for King or exile literature that depicts faithful subject, virtuous women as a main character.

This imaginary space of Gangnam of such meaning appears mainly in the literature of Seoul yangban in Joseon Dynasty.

As such it likely to reflect Shimsangjiri-the imaginative geography-of Seoul yangbans -noble men, who had been living over several centuries centered in Gyeongjeo (resident in Seoul)- Byelseo(resident outside Seoul).

Furthermore, if it was related to the residential space of Seoul yangban, the original birth place of imaginative geography can be deemed to have come from center oriented directivity that yangban had at that point of age.

**Key Words** Gangnam, Jangsa, Sosanggang, Dongjungho, Chango, imaginary space, Nature of tragedy, Gyeongjeo(京邸), Byelseo(別墅), Seoul yangban, Shimsangjiri.

논문투고일 : 2013. 09. 27  
심사완료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6